

중요한 이유를 두고 드리는 감사

출애굽기 23:14-17, 골로새서 1:9-23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당하고 떠나갈지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오순절 27번째 주일이다. 또 한국교회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다. 이 주일에, 우리 참사랑 가족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란다. 모든 원수들의 장난이 끝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정말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내자동 사거리에 온집한 사거리와 시민들이 저 벽을 제발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평화의 날, 자유의 날, 해결의 날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민족을 그만 가지고 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다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추수감사절로 모였다. 우리 민족은 원래 부여에서 영고, 신라에서는 한가위 같은 명절을 지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늘의 신께 감사했다. 제일 좋은 벼를 먼저 추수해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추수를 다 마쳐놓고 감사를 했다. 그것이 세 번째 주일을 지난 목요일이 된다. 그래서 올해는 24일, 25일 이매가 추수감사절이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영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정부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배를 하나 샀다.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 오월의 꽃이라는 이름의 배였다.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버지니아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좀 전에 온 사람들이 인디언들과 너무 싸우고, 처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해서, 배를 다시 띄웠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예배할 처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교육관,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할 움막을 지었다. 그리고 세탁을 하고 입주를 해서 생활을 시작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과정에 이를 때까지 거의 절반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인디언들에게 배워서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1623년 가을에 이것을 추수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짐승을 잡아서 마을 복판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눈물을 흘리며 드린 감사의 예배였다. 그것이 근대 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 계절에 RCA, 미주렐뎀트대회를 치른다. 이 절기에 미국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추석, 설날에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때는 좋은 호텔이 다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큰 호텔을 빌려서 집회를 한다. 사람들이 놀란다. 명절에 집에 안 가고 웬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큰 집회를 하나 해서. 어쨌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1월 첫째 주일에 하다가, 장로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른 교회들처럼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예배로 드리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절기로 지킬 만큼 감사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누리야 하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한 주간을 쉬면서 감사를 한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랬다. 일주일동안 했다. 나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추석 때는 거의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음식도 먹고 왕래하고 그랬다. 요즘이야 하도 바쁘니까 하루이틀만에 끝 내지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년에 세 번은 공식적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삶으로 누리라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하게 한 것이다. 복음에 대한 체험을 후대와 함께 해서, 후대에게 감사를 언약으로 잘 전달하라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찾아내는 하루,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구원에 대한 감사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드리는 첫 번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다. 찬송가에 보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다’ 찬송이 있다. 나는 그 찬송을 항상 눈시울을 적시면서 부른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합니다.”

(1)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율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1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견여주하지 않았다.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고기는 삶아서 먹으면서 그 피를 문질러주에 바른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왕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다.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광복절이다.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구원의 날이다. 신원의 날이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라. 이것이 첫 번째 감사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누리기를 바라신다.

(2) 율월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우리가 원래 전부 사단의 종이었고 세상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감사의 절기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귀신의 종 노릇, 마귀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답지 않은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분노하도록 만드는 저주의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서, 무술, 점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여섯 가지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열두 가지 재앙의 문제는 어떤 노력,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말이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란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하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 와서 하나님 만나 는 길을 열어야 한다. 사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두고 감사하는 절기가 율월절이었다. 올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램뎀트들이 와서 나에게 인사할 때가 있다. “목사님, 이런저런 모든 유익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이기지 모르지만, 나는 눈물을 흘릴 만큼 고맙다. ‘그래,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 했던 포기과 판단이 그릇되지 않았구나 싶다.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후대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심어주게 되었구나 싶어서, 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3)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단번에,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었다. 이제는 귀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지 않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시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라. 그러면 원수에게 조롱당하지 않는다.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해도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후회없는 기쁨의 생이 된다. 다시는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을 감사하자.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나 버렸다. 모든 과거가 이미 끝났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골로새서 1:13-14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끝난 것을 감사하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만 번 죽어도 만 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조건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야말로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인 것이다. 나는 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허리가 휘청하도록 감사해 보자는 말을 가끔 한다. 그런데 아직 못 발견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사람 한 번 만나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기를 축복한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감사 속에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유를 두고 감사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다.

2. 에벤에셀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였다. 땅도 없고 일도 못 하는 때다.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환장하겠고, 부추와 마늘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6.25때 섬에 있었다. 그 섬에까지 공산당이 총을 들고 왔다. 예배당과 파출소를 빼앗았다. 그때 나는 아이였는데, 어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눈물로 감사하시더라. 하박국서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마차에 싣고 갈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구간이 텅텅 비었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광경을 내가 봤다. 한 가족을 조기 엮듯이 엮어서 파발총으로 죽이는 것을 봤다. 비행기의 공중전, 군함과 비행기의 싸움도 내가 다 봤다. 그 포탄이 우리 집앞에 떨어지니까, 집 뒤뜰 담에서 벌벌 떨면서 피했던 6.25를 지냈다. 그런 참담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 그 50년, 6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지 않나? 좋은 음식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튀어나오고, (웃음) 나 혼자 사는데 뭐든지 자꾸 갖다주시니까 배가 나오는데, 어제는 기차를 안 놓치려고 뛰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 숨이 차서. (웃음) 지금까지 숨이 차는 것 같다. (웃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 같지 않나.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려 보자. 여러분, 이 감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순절의 감사다. 율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

는 날이 오순절이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굶어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먹여주셨다.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 오순절이다.

(2)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에 비유할 수 있다.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생이 아직 남아있다. 그 길이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광야 40년의 길과 흡사하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셨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1:18-23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했다. 여러분은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해야 한다. 나같은 죄인을 이렇게 인도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신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절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을 겪어야 그 다음에는 국민이 안 속을 것 아닌가. 분별력이 생길 것 아닌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것 아닌가.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를 두고 감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오늘을 두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것이다. 오늘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라.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전부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필연적인 감사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감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3. 보장된 미래에 대한 감사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됨에 대한 감사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나의 구주 예수라.”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달라고만 하는 저희를,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천국에 우리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1) 그게 수장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거둬들여져서 들어가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드디어 가난한 땅에 도착해서 거두게 되는 것을 두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다. 광야생활을 다 가면,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전 가족이 다 믿는다고 한다. 참 초상이었다. 여러분 가정도 다 그러 되면 좋겠다. 자녀들 중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비뚤어져서 악령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언약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런 축복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번에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한명국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다. 네 살 연상의 형님이셨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마하시기 전에 식사를 그분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박 대표님, 당신은 혼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나중에 비서관, 보좌관, 경호원을 다 붙여줍니다. 대통령 신분에 맞는 모든 것을 주어서 지켜줍니다. 대표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당신 말씀대로, 혼신을 다해서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대통령이 일어나서 자기 손을 쓰다듬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다. 그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악령 가진 자들이 그 옆에서 보좌하고 있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영원히 나를 이끌어 대통령 사는 곳보다 귀한 천국에 나를 들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장로님은 슬프겠지만,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독도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있는 곳이다. 우리 참사랑가족들 보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은 나 안 보고 싶은가? (웃음) 나는 믿는다. 꽤 괜찮은 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놀러오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이야기다.

(2)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절기다. 아직 가난한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것까지 전부 약속하셨다. 아직 추수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감사부터 먼저 가르쳐주셨다.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앞

당겨 받기 위한 실천이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앞으로 가게 될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중국의 마윈이라는 부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내 인생의 1/3을 키웠지만, 내 아내는 내 인생의 2/3를 책임져야 하니까, 어머니보다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 할머니를 섭섭하신가? 그래도 사실 아닌가. (웃음) 그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그러면서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남은 생애에는 내 아내를 의지해야 하니까, 어머니도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됐나 싶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남의 집에서 와서 나를 돌봐주고, 내 남은 생애에 숨 넘어갈 때까지 안아줄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란다.

(3)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감사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1:9-12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업의 영광을 얻을 것을 바울은 말씀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세계복음회의 미래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의 영광을 두고, 앞당겨서 감사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 미래의 영광과 응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하셨다. 이 백성 위해서 이 한 몸을 부서지도록 해서 제대로 세운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미래에 그런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 이 나라가 더 견고한 나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천국에는 우리 집이 다 준비되어 있다.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걱정하지 마라. 외로우면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 보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진다. 어서 속히 그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자. 이 땅은 족달복음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천국을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라. 천국의 광경이 거기 보인다. 우리 집에 오려면 열두 개의 진주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화요소가 만발한 곳이다. 유리 바다같은 호수가 있다. 양쪽에는 꽃이 만발했다. 과수나무가 가로수로 서 있다. 언제나 손을 뻗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주저리주저리 열려 있다.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당겨서 감사하라는 말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 아버지는 그 좋은 집을 마련해서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기 감사한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없이 살아도 괜찮다. 빙긋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 나라를 기다려라. 머지않아 주님 나를 부르실 그 때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장례식에서도 나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천국에 대해서 찬송한다. 여러분은 아무리 잘 모셔도 천국에 사시는 것보다 더 잘 모실 수 없다. 낙원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없다.

감사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간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제목은 붙잡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말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총, 또 하나는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절대적 축복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유를 넘어서 감사를 헌신으로 누려야 되겠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를 규례로 삼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그 속에 구원과 성령인도와 영원한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한다. 감사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감사를 지속하는 실천과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감사를 어떻게 회복하고 지속하며 어떻게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목상해 보라.

혼자 한 달 살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진짜 불편하다. (웃음) 그래서 이번에는 가만 고맙다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웃음) 밥도 잘 못 하고 세탁도 못 하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해 보려고. (웃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스승에게, 이웃에게, 감사를 또 찾아보고 규례로 만들어서 감사하시기 바란다. 이 설교의 말미에서 목상하면서, 내가 감사할 분이 없는가 생각을 해 봤다. 내가 시골, 저 전라도 섬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나를 목사고시 합격하자마자 축하해주시면서 임지를 소개해 준 분이 떠올랐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번 주에 시간이 되는대로 찾아뵙어야겠다 생각했다. 늘 감사했지만 또 한 번 감사해야겠다 싶었다. 집집마다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감사해야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사랑만 받고 살았다.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더 잘 돌볼 것이다. 여러분, 위, 아래, 옆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란다.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감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이때부터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과 웃음과 감사가 폭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미해결된 문제가 산적한 연말이지만, 오늘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에벤에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미래를 다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허박국 선지자가 마차에 실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듯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세례받고 유아세례받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 입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습니다. 아멘.”